

군산농업기술센터, 청년농업인과 영농현장 소통 차담회

군산시는 7일 청년농업인들의 조기 정착을 위한 안정적 영농 자립기반 마련과 전문농업인으로 성장을 돕기 위해 수도작에 종사하는 청년 4-H회원들과 차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청년농업인들이 귀농 또는 부모님의 영농을 돕고 승계하고자 농촌에 와서 초기 영농 정착단계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는 수도작에 종사하는 청년 농업인 15명과 농업기술센터 영농 4-H회 담당부서, 농어촌공사 군산지사 농지은행 사업담당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농 지원 활성화를 위한 농지 지원제도와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번 차담회는 최인규 군산시 4-H연합회장 등 청년농업인들은 영농 자립기반인 농지 확보의 어려움, 기성세대 부모와 MZ세대 자녀가 함께 생활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과정에서의 세대 간 갈등과 고충을 이야기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 최 4-H연합회장은 “청년창업 농업인 정책자금 지원 시 논에 타작물 2년 재배 의무로 콩을 재배한 청년농들이 금년 수해로 피해가 컸다”면서 타작물 2년 재배 의무사항 완화와 보상에 대한 대책 등 청년농 육성 지원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 초기 단계에 있는 청년농들에게 농업기술, 문

제해결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추진하는 스마트팜 청년 CEO 과정, 온라인 마케팅 교육, 청년농 현장 경영컨설팅 등 청년농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와 농어촌공사는 청년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농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결책 마련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김미정 농촌지원과장은 “인구소멸과 고령화로 인한 농촌지역에 활력 저하 문제의 답은 젊고 유능한 청년농업인 유치와 안정된 정착지원에 있다”며 “영농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수 농업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박수현 기자

전북중앙

2023년 08월 08일 화요일 010면 지역

군산시농기센터, 청년농업인 성장-조기정착 지원

4-H회원 애로청취 간담회

군산시 농업기술센터는 7일 청년농업인들의 조기정착을 위한 안정적인 영농 자립기반 마련과 전문농업인으로 성장을 돕기 위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농기센터는 수도작에 종사하는 청년 4-H회원들과 차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청년농업인들은 영농 자립기반인 농지 확보의 어려

움과 기성세대 부모와 MZ세대 자녀가 함께 생활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과정에서의 세대 간 갈등과 고충을 토로했다.

최인규 4-H연합회장은 “청년창업농업인 정책자금 지원 시 논에 타작물 2년 재배 의무로 콩을 재배한 청년농들이 수해로 피해가 컸다”며 “타작물 2년 재배 의무사항 완화와 보상에 대한 대책 등 청년농 육성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영농 초기 단계에 있는 청

년농들에게 농업기술,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추진하는 스마트팜 청년 CEO 과정, 온라인 마케팅 교육, 청년농 현장 경영컨설팅 등 청년농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미정 농촌지원과장은 “인구소멸과 고령화로 인한 농촌지역에 활력 저하 문제의 답은 젊고 유능한 청년농업인 유치와 안정된 정착지원에 있다”며 “영농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수 농업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

군산, 청년농 안정정착 현장 소리 청취

농기센터 등 4-H회원 '차담회'
스마트팜과 마케팅 지원 요청
시, 해결책 마련 적극협력 약속

군산 농촌지역 농민들이 MZ세대 청년 농업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군산시는 7일 청년농업인들의 조기정착을 위한 안정적 영농 자립기반 마련과 전문농업인으로 성장을 돕기 위해 수도작에 종사하는 청년 4-H회원들과 차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청년농업인들이 귀농 또는 부모님의 영농을 돕고 승계하고자 농촌에 와서 초기 영농 정착단계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는 수도작에 종사하는



7일 군산시와 농업기술센터 등이 지역 청년 4-H회원들과 차담회를 개최했다.

청년농업인 15명과 농업기술센터 영농 4-H회 담당부서,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농지은행 사업담당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농 지원 활성화 위한 농지 지원제도와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했다.

이날 차담회에서 최인규 군산시 4-H연합회장 등 청년 농업인들은 영농 자립기반인 농지 확보의 어려움, 기상세대 부모와 MZ세대 자녀가 함께 생활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과정에서의 세대 간 갈등과 고충을 이야기했다.

최 4-H연합회장은 "청년창업농업

인 정책자금 지원 때 눈에 다른 작물 2년 재배 의무로 콩을 재배한 청년농들이 올해 수해로 피해가 컸다"라면서 다른 작물 2년 재배 의무사항 완화와 보상에 대한 대책 등 청년농 육성 지원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초기 단계에 있는 청년농들에게 농업기술,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추진하는 스마트팜 청년 CEO 과정, 온라인 마케팅 교육, 청년농 현장 경영 컨설팅 등 청년농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군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는 청년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농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제도개선을 통한 해결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군산=강경청기자